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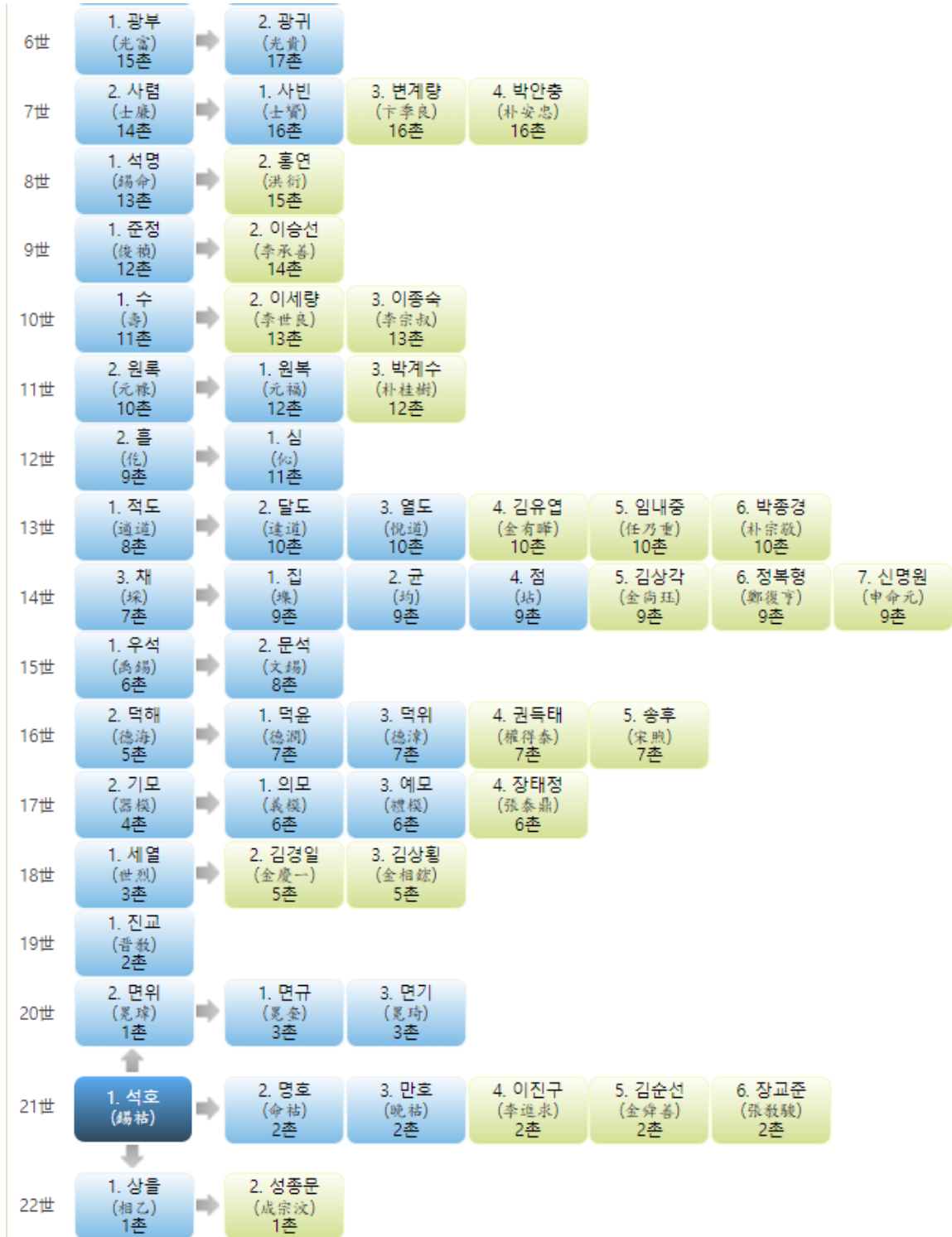
가헌집(可軒集) 신석호 (申錫祐)

가계도

21世 석호(錫祐)

父 : 면위(冕瑋) 祖父 : 진교(晉敎)

읍파(邑派)호계공파(虎溪公派)



신석호(申錫祐)

1816 년(순조 16)~1881 년(고종 18). 조선 후기 유학자. 부친은 신면위이다. 신석호(申錫祐)의 자는 덕문(德文), 호는 가헌(可軒)이다. 일찍이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한 후로 황조산(黃鳥山) 아래에 봉정(鳳亭)을 짓고 숨어살았다. 대원군(大院君)이 영남 유람길에 찾아와서 의기가 서로 맞아 시를 지어 공에게 주기도 하였다. 1866 년(고종 3)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공은 낙파상공(洛坡相公;柳厚祚)을 호동사제(壺洞私第)로 찾았으며 낙파공이 반겨주었으나 "이곳이 초야의 선비가 오래 있을 곳이 못된다"하여 돌아왔다. 낙파공의 추천으로 경상도 연보전도유사(捐補錢都有司)가 되었으며 1876 년(고종 13) 일본과의 수호조약이 체결되자 최익현(崔益鉉), 홍재학(洪在鶴), 황재현(黃載顯)과 함께 상소하여 그 불가함을 논하였다 한다.

시문집으로 3 권의《가헌집》이 전하는데, 이기윤이 지은 서문과 박증헌 등이 지은 발문이 붙어 있다.

1866 년 유후조(柳厚祚)의 천거로 경상도도유사(慶尙道都有司)에 올랐다. 저서로는 『가헌집(可軒集)』이 전한다.

신석호(申錫祐)의 자는 덕문(德文), 호는 가헌(可軒)이다. 일찍이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한 후로 황조산(黃鳥山) 아래에 봉정(鳳亭)을 짓고 숨어살았다. 대원군(大院君)이 영남 유람길에 찾아와서 의기가 서로 맞아 시를 지어 공에게 주기도 하였다. 1866 년(고종 3)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공은 낙파상공(洛坡相公;柳厚祚)을 호동사제(壺洞私第)로 찾았으며 낙파공이 반겨주었으나 "이곳이 초야의 선비가 오래 있을 곳이 못된다"하여 돌아왔다. 낙파공의 추천으로 경상도 연보전도유사(捐補錢都有司)가 되었으며 1876 년(고종 13) 일본과의 수호조약이 체결되자 최익현(崔益鉉), 홍재학(洪在鶴), 황재현(黃載顯)과 함께 상소하여 그 불가함을 논하였다 한다.

『가헌집』은 조선 말기의 학자인 신석호(申錫祐)의 시문집이다. 신석호의 자는 덕문(德文), 호는 가헌(可軒)이다.

이 책은 1962 년에 그의 현손인 용호(龍鎬)등이 편집, 간행하였고, 석인본이다. 권두에 이기윤(李基允)의 서문과 권말에 박증헌(朴曾憲), 그의 증손인 기능(基能), 현손인 용호 등의 발문이 있다. 부 3 편, 시 53 수 외 아래 목록에 제시한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선우(李善雨)가 찬(撰)한 행장(行狀)에 의하면 이기윤은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한 후로 황조산(黃鳥山) 아래에 봉정(鳳亭)을 짓고 숨어 살았다. 대원군(大院君)이 영남 유람길에 찾아와서 만났는데 서로 의기가 맞아 시를 지어 이기윤에게 주기도 하였다. 1866 년(고종 3)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낙파상공(洛坡相公) 유후조(柳厚祚)를 호동사제(壺洞私第)로 찾았는데, 낙파공이 반겨주었으나 "이곳은 초야의 선비가 오래 있을 곳이 못된다"하여 이내 돌아왔다. 낙파공의 추천으로 경상도 연보전도유사(捐補錢都有司)가 되었으며 1876 년(고종 13) 일본과의 수호조약이 체결되자 최익현(崔益鉉), 홍재학(洪在鶴), 황재현(黃載顯)과 함께 상소하여 그 불가함을 논하였다 한다.

『병자척왜소(丙子斥倭疏)』에서는 1876 년(고종 13) 개화와 친일을 주장하는 박영효(朴泳孝)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잡저 가운데 「용학발문(庸學發問)」에서는 『중용』과 『대학』의 난해한 부분을 의문 형식으로 문목을 만들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 「통도내교원각유소문(通道內校院各儒所文)」은 병인양요 때 경상도 각 향교와 서원에 보낸 통문으로서, 유학전통의 규범과 질서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신념에서 척사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삼정책(三政策)」은 1866년에 실시한 경시(慶試)의 책문이다. 비록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전부(田賦)·군적(軍籍)·환곡(還穀)에 대한 당시의 폐단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시정을 촉구한 것으로, 당시의 국내정세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며, 또한 삼정법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

단구서원(丹邱書院)

명 칭 : 단구서원(丹邱書院)

소재지 :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산 25-1

건축시기 : 1858년(철종 9)

중건시기 : 1873년(고종 10)

건축 배경

이 서원은 **신석호(申錫祐, 1816~1881)**가 단구서당을 지어 유생들을 가르치다가 그가 주관하여 신적도(申適道)와 신열도(申悅道)의 충성을 기리고 신채(申埰)의 유학사상을 전승시키기 위해 1858년(철종 7)에 서원으로 승격하여 건립하였는데, 그들을 배향하여 오던 중 1868년(고종 5)에 서원훼철령으로 훼철되었다.

서원 앞 공적비에 새겨진 글과 「거인재중건기(居仁齋重建記)」에 따르면 1873년(고종 10)에 다시 제단을 설치하여 향사를 지내다가 1989년에 전 민선 대전시장(前 民選 大田市長) 신기훈(申基勳)의 주관으로 묘우(廟宇)를 복원하고 위패를 봉안하였으며, 부지임야 534평은 후손 신원효(申源孝)가 기증하였다고 한다. 그 다음 해인 1990년에 신달도(申達道)를 추봉하였다.

건축 특징

신적도, 신열도, 신달도, 신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상덕사(尙德祠)는 나지막한 축단 위에 지어 졌고 정면 3칸, 측면 2칸, 맞배지붕으로 되어있다. 동재(東齋)인 거인재(居仁齋) 또한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고,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당을 가운데로 하여 좌우로 협실을 두었으며, 당은 뒤로 문을 열 수 있게 트인 공간으로 되어 있다. 서재(西齋)는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고, 정면 3칸, 측면 1칸인데, 정면에서 우측을 제외한 두 칸은 앞에 마루를 두었다.

건축 구성

숫을대문으로 된 외삼문을 들어서면 상덕사(尙德祠)가 정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마당의 좌우에는 동. 서재가 배치되어 있다. 동재는 거인재(居仁齋)라고 편액되어 있으나 서재는 편액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동재에는 「거인재중건기(居仁齋重建記)」와 「단구서원상량문(丹邱書院上樑文)」이 표구된 액자가 걸려있다.

현판

거인재중건기(居仁齋重建記)

신재인(申載仁) 기(記)

서지정보

원서명	可軒文集						
현대어서명	가헌문집						
청구기호	古 819.56-Si62g-v.1-2						
편저자(한자)	申錫祐(朝鮮) 著	판본사항	石版本	간행지	[刊地未詳]	책권수	3卷 2冊
편저자(한글)	신석우(조선) 저	간행연도	1968	간행자	[刊者未詳]	책크기	28.4×19.7cm
匡郭	四周雙邊, 半葉匡郭: 19.6×14.1 cm, 有界, 10行 20字			版心	上下向二葉花紋魚尾	표기문자	
表紙,版心,卷頭書名	表題:可軒文集, 版心題:可軒文集, 卷首題:可軒文集						
序,跋,卷首,卷末	序:戊戌重陽節...李基允, 跋:壬寅黃花節上澣('人'은 '寅'의 오자임)...朴宗憲, 壬寅至月上澣...申基能, 壬寅白露節...申龍鎬						
表題紙,內題紙				附	輓詞, 祭文, 交遊錄, 遺事, 行狀, 墓表, 跋文		
藏書記,內賜記							
刊記	1968년 4월 1일 발행. 발행인: 申龍鎬						
자료소개	朝鮮 末期의 儒學者 申錫祐(1816-1881)의 詩文集						
목차	卷 1:賦(3 篇), 詩(52 首), 疏(1 篇), 書(32 篇), 卷 2:雜著(庸學跋文, 三政策, 丙寅斥洋丙子斥倭後事實 等 30 篇), 卷 3:告由文, 祭文(3 篇), 上樛文(2 篇), 墓誌(2 篇), 行錄(3 篇), 附錄:輓詞, 祭文, 交遊錄, 遺事, 行狀, 墓表, 跋文						
합철							
소장본							
인記							
四부분류	集部 別集類 一般			기타			
M/F 번호	M/F99-16-38-B						

문집해설

문집개요

문집명	가헌집(可軒集)(19C)
간략서지	可軒 申錫祐의 문집. 석인본. 3 권 2 책.<古 819.56-Si62g>
간략해제	<p>조선 말기의 학자인 신석호의 문집이다. 1962년에 그의 현손인 용호(龍鎬)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기윤(李基允)의 서문과 권말에 박노헌(朴魯憲), 그의 증손인 기능(基能), 현손인 용호의 발문이 있다. 卷一에는 부(賦) 3 편, 시(詩) 53 수, 소(疏) 1 편, 서(書) 32 편이 수록되어 있고, 이 중「병자척왜소(丙子斥倭疏)」에서는 1876년(고종 13) 개화를 주장하는 朴珪壽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卷二에는 雜著 30 편이 실려 있는데 잡저 가운데 「庸學發問」에서는 {중용}과 {대학}의 난해한 부분을 의문형식으로 문목을 만들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리고 「通道內各校院文」은 병인양요 때 경상도 각 향교와 서원에 보낸 통문으로서, 유학 전통의 규범과 질서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신념에서 척사론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三政策」은 1866년에 실시한 慶試의 책문이다. 비록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田賦・軍籍・還穀에 대한 당시의 폐단을 낱말이 지적하면서 시정을 촉구한 것으로, 당시의 국내정세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며, '삼정문란'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 卷三에는 告由文 1 편, 祭文 3 편, 上梁文 2 편, 墓誌 2 편, 行錄 3 편 및 附錄이 실려 있다. 부록에 실린 저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輓詞, 祭文에는 글을 남긴 사람이 상당히 많고, 아들이 정리한 저자의 交遊錄에도 많은 인물들이 드러나는 것으로 볼 때 저자의 인간관계가 매우 넓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저자의 遺事, 行狀, 墓表, 墓誌銘 및 墓碣銘 등이 부록에 실려 있다.</p>

저자소개

편저자	신석호 (申錫祐)
저자개요	1816~1881 (순조 16~고종 18)字: 德文, 號: 可軒, 本貫: 鵝州, 父: 冕璋, 母: 延安 李氏 光現의 女 李善雨가 撰한 行狀에 의하면 저자는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한 후로 黃鳥山 아래에 鳳亭을 짓고 숨어 살았다. 대원군이 영남 유람길에 찾아와서 만났는데 서로 의기가 맞아 시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1866년(고종 3)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柳厚祚를 壺洞私第로 가서 만났는데, 류후조가 반겨주었으나 “이곳은 초야의 선비가 오래 있을 곳이 못된다.”하여 이내 돌아왔다고 한다. 류후조의 추천으로 경상도 捐補錢都有司가 되었으며 1876년(고종 13)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자 崔益鉉・洪在鶴・黃載顯과 함께 상소하여 그 불가함을 논하였다. 이 외에도 영남의 여러 유림들과 교류하며, 서원 창건・강학회 개설 등 지역 사회에서 여러 활동을 하였다.

내용개요

내용제목	可軒集 내용개요	청구기호	古 819.56-Si62g
권수	권제목:		
序	1958년 星山人 李基允(성산인 이기윤)이 쓴 서문이다. 훌륭한 용모를 가지고 시와 예를 아는 가문에서 태어난 저자가 修身(수신) 및 學問(학문)을 갈고 닦았으나 문장교유는 일삼지 않았고, 柳厚祚.金道和.崔益鉉(유후조.김도화.최익현)		

등의 당대명사들과 가려 사귀었으며, 대원군도 그에게 國士(국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의 저술한 바는 많지 않아서 흠어져 있는 것을 겨우 모아 2 책을 만들었는데, 그 중 「庸學發問(용학발문)」에서는 학문의 깊음을 알았고, 「三政策(삼정책)」에서는 가슴에 품은 웅대한 뜻을 알았으며, 「丙子斥倭疏(병자척왜소)」에 이르러서는 報國(보국)의 충성스러움을 보았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들을 어찌 책으로 엮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 후손 基能.龍祐.永大(기능.용호.영대) 3 인의 청으로 글을 쓴다고 밝히고 있다.

권제		권제목:卷一
元亨利貞賦 (1)	周易 天道(주역 천도)의 4 가지 덕인 元亨利貞(원형이정)의 오묘한 이치를 노래한 부이다.	
聞韶樓賦 (1)	문소루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부이다. 문소루는 경상북도 의성군 구봉산에 있는 누각이다. 원래 위치는 의성관아 뒤편에 있었고, 관리들의 향연장으로 쓰였다.	
五百餘年而後得韓愈賦 (2)	공자.맹자의 유교 정통의 학문을 이은 당나라 문인 한유(768~824)를 칭송하는 부이다.	
詩 (3)	讀大學感吟-十三歲作-戊子, 牧丹, 雨中次唐人韻-二首, 漢江舟中作-丙申, 金剛山, 贈姜判書-蘭馨-張縣監-福遠, 漁磯, 觀漲, 秋水, 月下聞鶴, 松琴, 泉, 雨中移菊, 瀑布, 立冬, 敬次太祖大王遊白雲臺韻, 景德王陵懷古, 對酒, 次王昌齡韻, 次杜牧之韻, 次儲光義韻, 次王維韻, 塘蓮, 敬次治隱吉先生韻, 秋夜約友人登酒樓, 賀友人筮仕, 漢亭與金大輿-哲根-共吟, 與金敬立-義裕-共吟, 贈金啓明-炳善, 奉呈大院君閣下, 丁丑以譜事往公山歸路有感而作, 輓族祖九軒公-駟教, 大院君遊嶺時自洛東來訪鳳亭共吟-附大院君詩, 壺洞席上吟示諸賢-丙寅洋騷時, 贈崔-益鉉-洪-在鶴-黃-載顯-諸公-附崔勉庵-益鉉-詩-二首, 虎溪先祖延贈爵時感吟, 輓族叔市南公-冕周, 謹呈洛波柳相公-厚祚-二首, 輓定齋柳丈-致明, 輓茶泉司空進士-穩, 乙丑秋南隱司空-皐-共吟, 偶吟, 晚春過鳥嶺, 洛中吟, 題鳳亭, 題鳳麓書堂, 癸丑日旱與邑倅祈雨祭于金鶴龍穴, 洛中歸路謹呈鈍庵李丈, 陶山書院謁廟有感而作, 和族姪-仁植-晚守堂韻-二首, 採薇歌	
丙子斥倭疏 (12)	1876 년 강화도에서 맺은 조일수호조약에 대해 저자와 동지 崔益鉉최익현(1833~1906) 洪在鶴(홍재학)(1848~1881).黃載顯(황재현)(1848~1903) 등과 비분강개한 뜻을 갖고, 친일파 박규수(1807~1876) 일당을 중요사직을 저버린 흥당들이라고 비판하며 이들 매국 간당들을 벌하고, 나라를 편안히 할 것을 주장하는 상소문이다.	
上定齋柳丈 (14)	柳致明(유치명)(1777~1861)에게 보낸 편지글이다. 이전에 그가 벼슬을 권했는데 고사한 후 수 개월이 지난 지금 몸 편히 잘 지내고 있음을 말하고, 그 명을 받들었다면 이는 곧 죄가 되었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 말미에 禮(예)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보낸다 하고 글을 맺었다. 그 질문들은 전하지 않는다는 부가 설명이 마지막에 나온다.	
上洛坡柳相公 (15)	柳厚祚(유후조)(1798~1876) 집안의 경사를 축하하고, 만나서 회포를 풀자는	

	편지글이다.
答洛坡柳相公 (15)	가르침에 대해 감사하고, 류후조의 뛰어난 학식에 감탄하는 한편, 나라는 어지러운데 나신의 힘은 미약함을 탄식하는 답장이다..
上韓相公-啓源 (16)	1867년 韓啓源(한계원)(1814~1882)에게 보낸 편지글이다. 전날 어사 朴宣疇(박선주)가 政院事(정원사)를 개혁한다고 했는데, 과연 실행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附韓相公書 (16)	한계원의 답장이다. 일에 성의를 다하면 생각이 움직일 것이라고 하고 있다.
上外舅金公-得熙 (16)	장인 金德熙(김덕희)에게 보내는 편지글이다. 살피야 할 일을 미처 다 살피지 못 했다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고 있다.
上內舅李公 (17)	외숙 이공에게 쓴 편지글로, 조카들의 안부를 묻는 한편 외조부의 제사에 마땅히 직접 가는 것이 작은 정성을 보이는 것이지만, 집안 사정으로 가지 못 하여 죄송하다는 내용이다.
上內舅李公 (17)	역시 외숙 이공에게 보내는 편지글이다. 매번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나 열심히 따르지 못 하는 자신의 게으름을 책망하고, 저번 외조부의 제사는 여러 아우들이 잘 받들어서 다행이라고 하고 있다. 이번 백부님의 緇禮(면예)에도 직접 가야 하나 그러지 못 하고 대신할 사람을 보내 돕게 한 것을 죄스럽게 여기는 내용이다.
上盧公-周燁 (18)	1834년 고모부인 노주엽에게 쓴 편지글이다. 항상 가르침을 받는데 자신의 고질병인 게으름을 두려워할 뿐이며, 자주 뵈지 못 함을 안타까워 하고 있다.
上茶庵三從叔-冕儉 (18)	1844년 셋째 종숙 申冕儉(신면검)에게 보낸 편지글이다. 상경했던 셋째 조카가 돌아옴에 안부를 전하고, 자주 만나지는 못 하나 가문을 돈독히 하는 풍속으로서 후손은 조상의 공덕을 잊지 말고 잘 모셔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上母夫人 (19)	저자가 집을 멀리 떠나 있을 때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던 편지이다. 자주 연락하지 못 함을 죄송스러워 하면서 다음 달에 틈을 봐 돌아갈 계획이라며 끝맺고 있다.
與金拓庵-道和 (19)	어지러운 나라 상황에서 애쓰고 있는 金道和(김도화)(1825~1912)의 충성스러움을 칭찬하는 편지글이다. 김도화는 후에 을미사변 및 단발령에 항거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與金拓庵 (19)	한가로이 요양하고 있는 자신은 이미 늙어 아무 것도 하지 못 함을 탄식하면서 김도화의 자애보중(自愛保重)을 당부하는 편지글이다.
與金持平-羲裕 (20)	김희유에게 人事의 시작은 봄부터이니 함께 술을 마시면서 봄을 맞이하자고 청하는 내용이다.
與柳溪堂-疇睦 (20)	1856년 柳疇睦(유주목)(1813~1872)에게 쓴 편지글이다. 오랫동안 이행되지 못 했던 丹邱書院(단구서원)의 營建(영건)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되어서 族弟 漢宗(족제 한종)으로 하여금 門을 만들게 했으니 이를 百世의 信筆(신필)로 삼자고 건의하고 있다.
答柳溪堂 (20)	류주목에게 정사의 고단함을 위로하며 한 번 방문해주길 바라는 편지글이다.
與李肯庵-敦禹 (21)	1857년 李敦禹(이돈우)(1807~1884)에게 쓴 편지글이다. 저자의 선조인 虎溪 懶齋 忍齋(호계.나재.인재) 3인을 사당에 배향하는 일이 숙종·영조대부터 있어왔으나 지금까지 거행되지 못 하다가 작년에야 결정이 났음을 밝히고,

	享祝文(향축문) 및 奉安文(봉안문) 2 편을 써 달라고 청하는 내용이다.
與李肯庵 (21)	이돈우의 글솜씨를 칭찬하는 편지글이다.
與李肯庵 (21)	이돈우에게 자신의 한가로움을 전하고, 함께 자연풍광을 즐기면서 시를 읊고 노닐 것을 청하는 편지글이다.
答泮中李-用基-金-濟寅-外諸君子 (22)	1867 년 여러 유림들이 저자의 조상 호계 선생의 贈壽(증작)을 축하하는 시를 지어줬던 것을 감사하는 편지글이다.
答族弟源祐 (22)	아우 원호에게 쓴 편지글이다. 茶庵 從叔(다암 종숙)과 九軒 族祖(구헌 족조)가 방문하여 상의했는데, 先院(선원)을 세우는 일이 어려운 와중에 다행히 이루어졌으니 이를 주변에 전하여 정확히 보이라는 내용이다.
答金-養燾 (22)	金養燾(김양희)에게 쓴 답장이다. 저자가 병이 들어 왕래가 끊어진지 오래임을 유감스러워 하면서 人馬(인마)를 보내 그가 왕복하는 날짜를 계산하여 준비시킬 것이니 놀라지 말 것을 전하고 있다.
答李某 (23)	1853 년에 쓴 답장이다. 뜻밖의 편지에 감사해 하면서, 사양하는 뜻을 보여도 군자를 돕는 것이 道이므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1斛(약 10 말)의 곡식으로 여러 날 저녁밥을 공급하니 허물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與朴侯-最壽 (23)	1870 년 의성 현감을 지냈던 朴最壽(박최수)에게 쓴 편지글이다. 술자리를 마련했으니 와 달라는 내용이다.
與李侯鼎民 (23)	李鼎民(이정민)(1800~?)에게 쓴 편지글이다. 정월 대보름에 동지 여럿과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며 즐기니 태평성세 같았으며 그에게도 저자의 집으로 와줄 것을 청하고 있다.
與徐侯-珽輔 (24)	徐珽輔(서정보)에게 쓴 편지글로, 봄놀이 갈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答成東甫-震運 (24)	成震運(성진운)에게 쓴 답장이다. 저자가 서울에 다녀온 일에 대해 건강을 염려해줘서 감사하며, 저자 부부가 모두 조만간 한 번 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與雲里李公-羲在 (24)	1864 년 李羲在(이희재)에게 쓴, 새해인사를 하는 안부편지이다.
與雲里李公 (25)	저자는 두 가문의 우의가 얽게나마 누대 내려왔는데, 지금 또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고, 며느리가 돌아오는 날이 매우 화창하여 하늘도 새 사람의 인덕을 인정하는 듯 하다며 가문의 경사를 축하하고 있다.
與李籠軒-進求 (25)	1846 년 李進求(이진구)에게 쓴 편지글이다. 자신의 학문수양이 불민함을 탓하고, 이진구의 고명한 식견을 듣고 깨닫는 바가 많았다는 내용이다.
與張樂安-教駿 (26)	낙안 군수 張教駿 장교준)에게 쓴 편지글이다. 시집보낸 여동생의 예의범절이 부족하니 천천히 가르쳐 달라는 내용이다.
與成壻-宗汶 (26)	成宗汶(성종문)에게 쓴 편지글이다. 젊을 때 부지런히 학문을 갈고 닦아 후회가 없게 하라는 내용이다.
寄家兒相乙 (26)	1863 년 아들 신상을(申相乙)에게 쓴 편지이다. 멀리 떠나 있는 아들에게 힘든 점은 없는 지 안부를 묻는 한편, 항상 스승과 벗의 가르침을 힘써 살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권제

권제목:卷二

庸學發問 (1)

『중용』·『대학』에 대한 저자의 견해와 의문점을 기록한 글이다. 『중용』에서는

	<p>知覺.性.心(지각.성.심)의 관계, 주자의 庸(용)에 대한 생각과 程子の 그것의 비교, 理와 氣의 순서, 德.情.行(덕.정.행)의 분별, 증용의 목차 순서 등에 대한 의문이 나열되어 있고, 『대학』에서는 明德(명덕)의 의미, 正心(정심)과 中庸(중용)의 차이, 「平天下(평천하)」장에 結語(결어)가 없는 이유 등에 대한 의문 및 문장 곳곳에 闕文(결문)이나 衍文(연문)이 생겨난 이유까지 세세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p>
三政策 (6)	<p>조선이 건국된 이래 잘 시행되어 오던 전정·군정·환곡의 삼정이 세도정치 이래로 무너진 것을 통탄하며 그 문란을 시정할 대책을 상소한 글이다. 전정은 옛날의 정전제(井田制)를 시행하면서 농토를 기반으로 마을의 장정 무리를 둘로 나누어 교대로 군대에 가도록 하고, 군정에 대해서는 군적의 엄정한 기재를 강조하고 있다. 환곡의 폐단에 대해서는 고리대 관행을 바로잡아 적절한 이자를 받도록 건의하고 있다.</p>
羅溪書院三先生事蹟 (16)	<p>나계서원에 배향된 洛濱 李壘(낙빈 이언)·舞溪 朴敏樹(무계 박민수) (1501~1557)·柳村 朴從男(유촌 박종남)(1558~1620)의 사적을 설명하는 글이다. 이언은 세종대 인물로, 남원·전주에서 선정을 베풀어 생사당 및 초상이 만들어지고 해마다 제사를 받았으며, 은퇴 후 낙빈에 은거하여 학문에 힘썼다고 한다. 박민수에 대해서는 효성이 지극하여 병든 어머니를 위해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굴하지 않고 살려줄 것을 호소하여 그 효성에 감복한 호랑이가 귀갓길을 지켜줬다고 하며, 시묘살이도 극진히 하여 후에 효로써 공조참의에 제수되었다고 한다. 박종남은 박민수의 후손이고, 무예에 뛰어나 임진왜란·정유재란 시 광재우와 함께 활약하여 그 공으로 벼슬을 제수 받았지만, 염증을 느끼고 귀향하여 학생을 가르치면서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p>
丹邱書院營建顛末 (18)	<p>저자의 선조 虎溪·晚悟·懶齋(호계·만오·난재) 3인을 서원에 배향하기까지의 전말을 기록한 글이다. 숙종~영조 시기에 건의됐으나 성과가 없다가 순조 때 고향 사림들과 적극 논의하여 셋째 종숙 다암도 힘쓰고 저자에게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아우 원호도 도왔으나 진척되지 않다가 헌종 병오년(1846) 부친 사망 후 명을 받들어 동분서주한 지 21년, 철종 병진년(1856) 여러 친인척 및 고향 유림들이 모여 의논하여 난재의 유허지인 丹邱에 서원을 짓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배향은 호계·난재·인재 3인만 하기로 하고, 만오 공은 제외되어 유감이라는 내용이다.</p>
梅堂先生文集重刊顛末 (19)	<p>저자의 선조 회당 선생은 남명 조식 학파에서 학문을 갈고 닦았고, 효행으로 이름이 나 『속삼강록』에 실리기도 했다며 그의 이력을 설명하고, 문집의 최초 간행자는 5대손 晚香齋(만향재), 手撰(수찬)은 山圖(산도), 跋文(발문)은 二恥齋(이치재)가, 年譜 識文(연보 식문)은 저자가 맡았다고 되어 있다.</p>
丙寅斥洋丙子斥倭後事實 (20)	<p>선조 호계 선생의 贈爵(증작) 일로 서울에 와서 한계원, 류후조 등의 同鄉(동향)을 만난 후 비분강개한 마음으로 병인양요·강화도 조약 등 어지러운 시국을 논한 일을 기록한 글이다..</p>
眉叟先生影閣倡建時通文-許穆 (1595~1682)의 영각을 짓는 일에 주변 사람들이 무관심한 것을 代永溪儒生作 (21)	<p>안타까워하면서 여럿이 모여 성의를 다 할 것을 촉구하는 통문이다.</p>

額院毀掇時通鄉內士林文-서원의 현판을 없애게 된 것에 대해 슬퍼하면서 근처 유림들에게 모여서 代永溪儒生作 (21)	부당함을 논하자는 통문이다. 대원군이 강행한 서원철폐에 대한 내용인 듯하다.
額院毀掇時通道內校院文-위에 언급한 서원철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경상도의 모든 유생들에게 代永溪儒生作 (22)	모이라는 통문이다.
通道內各校院文-丙寅洋擾時 병인양요 발발로 인한 시국의 어지러움을 통탄하고, 영남 유생 모두 충의를 (23)	다지면서 힘을 합치자는 통문이다.
沂川祠立享時通鄉士林文 단종대의 충신 杻亭 權선생(미상)의 사당을 기전에 세우게 됐으니 모두 모여 (24)	기념하자는 통문이다.
沂川祠立享時通道內士林文-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상도 모든 유생들에게 모일 것을 알리고 있다. 代本鄉儒生作 (25)	
丹邱書院享時通道內士林文- 앞서 언급했던 저자의 선조 申適道·申悅道·申塚 3 인을 서원에 배향하게 代本鄉儒生作 (25)	됐음을 알리고, 영남 유생들에게 함께 의례를 행할 것을 알리는 통문이다.
東洛書院晚悔張公追享時答通文- 평소 뛰어난 학문과 덕행으로 이름난 張顯光이 생전에 창건한 서원에 代丹邱儒生作 (27)	추모·배향됨에 대해 저자의 선조인 申悅道도 생전에 이 서원을 많이 도왔던 특별한 인연이 있으니 자신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밝히는 통문에 대한 답신이다.
勸坊縣講學回文 (28)	인간된 도리를 다 하기 위한 학문을 갈고 닦으려면 강학이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저자가 거하는 지역에서 강학회를 여니 여러 선배들이 와서 후배들을 가르쳐 달라는 글이다.
通東洛書院文-代永溪儒生作 저자의 조상인 申悅道 예전에 동낙서원 봉안문을 지은 적이 있는데, 이 (29)	서원에 속한 蔡楸의 遺集에 이 글이 실려 있으니 교정해서 다시 찍을 것을 요구하는 통문이다.
通東洛書院文-代藏待儒生作 내용은 위와 같고, 장대서원 유생들을 대신해서 저자가 쓴 것이다. (30)	
通東洛書院文- 내용은 위와 같고, 저자가 申悅道の 후손을 대신해서 썼다. 代懶齋先生本鄉作 (31)	
答蔡氏門中 (33)	蔡楸의 문집에 실린 글이 저자의 선조 申悅道가 쓴 것이라는 증거가 자신에게 있으므로 잘못 실린 것이 확실하다며 의혹을 없애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通邑龜兩派文 (34)	저자의 가문의 貫鄉 및 시조 분파 사적이 일관되어 있지 않음을 한심하게 여기며, 고려 중엽부터의 가문 내력을 설명하는 글이다. 여말선초의 선조가 두문동에 은거한 까닭으로 가문의 내력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 했음을 밝히고, 조선 후기에 구파·읍파로 나누어진 내력 등을 밝히면서 자신의 가문에 대해 명문거족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三一齋重建顛末 (36)	저자의 마을에 있는 삼일재는 그의 조상 申元祿이 창건하여 지금껏 강학 장소로 쓰였는데, 수백여 년이 지난 지금 지탱할 수 없게 되어 훈장인 저자가 1848 년 봄 중건을 건의, 다음 해 1849 년 9 월 완공되었다는 내용이다.
禮 故曰儒-以下科製, 易	이 글들은 저자가 {예기}·{주역}·{시경}·{서경}의 경전에서 몇몇 구절을

天地感而萬物化生, 易 발취하여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의문점 등을 표시한 것들이다.
積善之家必有餘慶, 禮
視於無形聽於無聲, 詩
如日之升, 書 惟民生厚, 禮
君子有終身之喪, 禮
聲音之道與政通, 禮
祭祀不言凶 (38)

권제 권제목:卷三

從高祖二恥齋公復職告由文(종고조이치재공부직고유문) (1)

종고조가 세상을 잘못 만나 억울하게 화를 입었으나, 지금 다행히 그 원한이 풀리고 복직하게 되었음을 고하는 글이다.

金鶴龍穴祈雨祭文(김학용혈기우제문) (2)

금학의 용혈이 가물어서 백성들이 고초를 겪으므로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글이다.

祭叔父文, 祭從弟致休-永祐-文(제숙부문, 제종제치휴-영호-문) (2)

숙부와 종제 영호의 죽음을 각각 애도하는 제문이다.

義城教坊廳上梁文(의성교방청상량문) (3)

화재로 불탄 의성 교방청을 다시 지으면서 올린 상량문이다.

鳳亭上梁文(봉정상량문) (5)

저자가 지은 봉정에 대한 상량문이다. 주변 친지들과 함께 즐겨 노닐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

九代祖城隱府君墓誌(대조성은부군묘지) (7)

저자의 9대조 申佺(신흘)의 묘지이다. 품성은 효성스럽고, 형을 잘 모셨으며, 독서를 좋아하고, 게으르지 않아 道를 구하려는 뜻이 있었다. 임진왜란 때 형 倡(창)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고, 좌승지로 추증됐다. 부인은 숙부인 순천 박씨라는 내용이다.

伯祖靜隱公墓誌(백조정은공묘지) (9)

저자의 10대조 懷堂(회당) 선생의 형인 申元福의 묘지이다. 신원복이 아플 때, 회당 선생이 간병하고, 약초를 캐왔던 일, 두 형제가 모두 효자여서 '난형난제'라 칭해졌던 일, 그것이 『삼강행실도』에 실렸던 일, 형제가 상의하여 서원을 세웠던 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부인은 興陽 李氏(흥양 이씨)이다.

高王考衿溪府君行錄(고왕고금계부군행록) (11)

저자의 고조 申器模(신기모)의 행록이다. 시조 및 신기모의 고조부터의 조상 내력을 언급한 후, 어려서부터 사리에 밝았고 학문 탐구에 열중했으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 하여 주변 사람들이 애석해 했다는 것, 이후 성리학 연구에 힘쓰고 효도를 다하여 후손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 이인좌의 난 때에는 의병 활동을 했음을 말하고 있다. 부인은 信州 鄭氏(신주 정씨)이고, 1남 2녀를 두었다.

先考韶隱府君行略(선고소은부군행략) (13)

저자의 부친 申冕瑋의 행록이다. 조상 내력부터 시작하여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詩·禮·忠·孝(시·예·충·효)의 학문을 혼자서 깨우쳤고, 비록 과거 급제는 못 했으나 효도, 형제간 우애 및 가 문화합에 힘썼다고 하고 있다. 부인은 延安 李氏(연안 이씨)이고, 3남 3녀를 두었다. 부친이 겨우 45세에 세상을 떠났음을 애도하고 있다. 마지막에 부친이 생전에 이루려 했던 서원 창건, 조상 배향, 遺稿(유고)의 문집 발간 중 문집 발간 외에는 저자가 실행했음을 밝히고 있다.

三從叔茶庵公行錄(삼종숙다암공행록) (15)

셋째 종숙 申冕儉(신면검)의 행록이다. 조상 내력을 나열한 후, 그의 골격이 나면서부터 비범했고, 학문이 뛰어나서 '연소하나 奇才'라는 칭찬을 들었으며, 효성도 지극하여 모든 윤리에 돈독하였다. 자식이 없어 저자의 從弟 正祐를 양자로 들여 후사로 삼았음을 밝히고, 철종대 단구서원을 지을 때 재물을 내어 종친들의 모범이 되었음을 칭송하고 있다. 부인은 潘南 朴氏이고, 1남 1녀를 두었다.

附錄/輓詞(부록/만사) (17)

저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로서, 金道和(김도화).李敦禹(이돈우).柳疇睦(유주목).李羲在(이희재).金養憲(김양희).金弼洛(김필낙).申桂東(신계동).族姪 仁植(족질 인식).金慶善(김경선).金健輝(김건휘).金燾(김도).李進求(이진구).金絢輝(김현휘).金縉輝(김진휘).金璣銖(김기수).族祖 滌教(족조 영교).具曾喜(구증희).具孟喜(구맹희).朴奇寅(박기인).族弟 漢宗(족제 한종).朴胤鉉(박윤현).族祖 正教(족조 정교).族祖 受教(족조 수교).洪靖佑(홍정우).申重遠(신중원).朴海根(박해근).族姪 相憲(족질 상헌).四從姪 敦植(사종질 돈식).李魯宇(이로우).任學洙(임학수).申周遠(신주원).申纘祐(신찬호)가 차례로 참여하였다.

附錄/祭文(부록/제문) (25)

저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제문이다. 대원군이 청나라로 끌려갈 때 인편으로 보내온 글부터 시작되어 金道和·李羲在·朴崇祖·李進求·金在玠·洪在謙·司空皞·從子 相夏·族姪 相憲·姪壻 金絢輝·四從姪 敦植·任學洙·族姪 圭植·金顯相·甥姪 李道性·婦姪 金漢鎮·外孫 成勳鎮·甥姪 金壽挺·季弟 晚祐·族弟 源祐·族姪 相衡·四從弟 斗祐·從姪 敏植(김도화·이희재·박승조·이진구·김재구·홍재겸·사공호·종자 상하·족질 상헌·질서 김현휘·사종질 돈식·임학수·족질

규식·김현상·생질 이도성·부질 김한진·외손 성훈진·생질 김수정·계제 만호·족제 원호·족질 상형·사종제 두호·종질 민식)이 차례로 썼다.

附錄/墓祭文(부록/묘제문) (50)

저자의 묘에 제사를 올리며 쓴 글이다. 義城邑倅·李斗綱(의성읍취·이두강)이 차례로 썼다.

附錄/交遊文(부록/교유문) (51)

저자와 교유했던 인물들의 목록이다. 성명·자·호·인품·교유내력 등이 나열되어 있다. 목록에 올라있는 이름으로, 위의 輓詞(만사) 및 祭文(제문)을 써준 인물들을 포함하여 57인이 기록되어 있다. 저자의 아들 相乙(상을)이 정리했고, 申冕鉦(신면옥)이 글을 덧붙였다.

附錄/遺事(부록/유사) (63)

저자의 조상내력 및 생애와 주요 행적을 연대순으로 정리한 유사이다. 從子 相夏(종자 상하)가 지었다. 저자는 어려서부터 하는 일이 사리에 맞았고, 모든 일을 처리할 때 항상 유학을 숭상하고 선조 받들기를 우선했으며, 벼슬 구하기를 즐기지 않았다. 주변 친지들과의 우애도 돈독했고, 옳지 못 한 것을 보면 반드시 가르쳐 바로잡았기에 노복들이 감히 얼굴을 들어 바라보지 못했다. 이에 따르는 이가 많았다. 을묘년(1855) 鳳亭(봉정)을 지었을 때 마침 대원군이 영남을 방문하여 저자와 시를 주고받으며 즐겁게 지내고 후일을 기약했다. 이후 선조를 배향하기 위해 단구서원을 지은 일, 회당 선생이 지었던 삼일재를 고친 일, 선조의 문집 발간 및 벼슬 추증을 성사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일, 병인양요 시 여러 문인들과 시국을 염려하고, 강화도 조약 체결 시 최익현·홍재학·황재현 등과 함께 반대상소를 올렸던 일 등이 언급되어 있다.

附錄/行狀(부록/행장) (69)

저자의 행장이다. 遺事(유사)와 내용은 비슷하다. 무술년(1898) 李善雨(이선우)가 지었다.

附錄/墓表(부록/묘표) (73)

李章濩(이장호)가 지은 저자의 묘표이다. 내용은 유사 및 행장과 비슷하다.

附錄/墓誌銘(부록/묘지명) (76)

1899. 朴世煥(박세환)(미상)이 썼다.

附錄/墓碣銘(부록/묘갈명)(79)

1894. 權相圭(권상규)(1874~1961)가 썼다.

附錄/豎碣時告由文(부록/수갈시고유문) (81)

1956. 증손자 基鳳(기봉)이 저자의 묘비를 세우면서 쓴 글이다. 세월은 가고 사람은 잊혀 졌는데, 이제 선조의 묘비를 세우게 되어 감개무량한 심정을 담고 있다.

附錄/跋(부록/발) (82)

1962. 朴魯憲(박노헌) · 증손 基能(기능) · 玄孫 龍祐(현손 용호) 3인이 썼다. 저자의 높은 덕 · 학문 · 업적 등을 칭송한 후 그의 遺稿(유고) 약간을 모아 늦게라도 문집으로 발간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마지막에 글을 보탠다는 내용이다.